



한국 성인에서 코로나-19 유행 전후의 연령 및 성별에 따른 비만 및 복부비만 유병률의 변화

민혜준¹, 박혜순¹, 이정아¹

¹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과

서론

코로나-19 유행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및 일상생활 변화 등으로 비만의 유병률은 증가하였다. 본 연구는 코로나-19 유행 전후의 성별 및 연령에 따른 비만과 복부비만 유병률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.

방법

2018-2021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만 19세 이상, 80세 이하의 성인 17,660명을 분석하였다. 코로나-19 유행 이전인 2018-2019년, 이후인 2020-2021년으로 나누어 체질량지수 (body mass index, BMI), 허리둘레, 비만 및 복부비만의 유병률을 비교하였다. 대한비만학회 진료지침에 따라 BMI $25\text{kg}/\text{m}^2$ 이상을 비만으로 나누었으며, 허리둘레는 남성 90cm, 여성 85cm를 기준으로 사용하였다. 연령은 19-39세, 40-59세, 60세 이상을 각각 젊은 성인, 장년층, 노년층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. 모든 통계분석은 복합표본분석으로 진행하였으며, 연령, 가구소득수준, 교육 수준, 결혼 여부를 보정하여 다변수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.

결과

코로나-19 유행 이후 우리나라 성인 남성에서 비만과 복부 비만의 교차비(95% CI)는 1.20배 (95% CI, 1.09-1.34), 1.34배 (1.20-1.49)로 모두 증가하였으며, 성인 여성에서는 비만과 복부 비만의 교차비가 각각 1.16배(1.04-1.29), 1.26배(1.12-1.41) 증가하였다. 연령별로 살펴보았을 때, 젊은 남성에서는 비만과 복부 비만의 교차비가 각각 1.20배(1.02-1.42) 1.39배(1.17-1.66), 장년층 남성에서는 각각 1.24배(1.06-1.45), 1.34배(1.14-1.57)로 모두 증가하였다. 노년 남성에서는 복부 비만의 교차비만 1.25배 (1.04-1.51) 증가하였다. 젊은 여성 및 장년층 여성에서 복부 비만의 교차비는 각각 1.38배(1.08-1.75), 1.28배(1.07-1.53) 증가하였으나 비만의 유병률은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았다.

결론

코로나-19 유행으로 인해 비만이 증가하였으며, 남성은 비만과 복부 비만의 유병률이 모두 증가한 반면 여성은 주로 복부 비만의 유병률이 증가하였다. 이러한 양상은 노년층보다는 젊은 성인 및 장년층에서 뚜렷하게 관찰되었다.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코로나-19가 비만에 미친 영향이 다르므로, 이를 고려한 보건정책 수립 및 관리가 필요하다.